

선행사-포함 생략¹⁾ 구문 분석²⁾

강 우 순

1. 서론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에 대한 연구는 생략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생략에 대한 연구는 그것의 정체가 없다는 데 매력이 있을 뿐 아니라 아무도 무엇이 정확하게 그 생략을 대치하고 있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이다. 그래서 더욱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이라고 한다.

- (1) a. Mary read every book that John will.
- b. Mary read every book John did.

이 구문이 선행사-포함 생략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내포절에 생략되어 있는 동사를 주절(선행절)의 동사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은 세가지 언어 현상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관계절 구문이다. *every book*이라는 명사구는 *that John will* 또는, *John did*로 관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의 문장을 범주를 매겨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 a. Mary read [_{NP} every book [_{S'} that [_S John will]]].
- b. Mary read [_{NP} every book [_S John will]].

둘째, 생략이 포함되어 있다. 생략은 언어 이론이 생긴 이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한 문장에서의 생략은 그 문장에 생략을 복원시킬 만한 요소가 들어 있을 경우이다. (1)의 예문을 생략 없이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될 것이다.

- (3) a. Mary read every book that John will read.
- b. Mary read every book John did.

1) 선행사-포함 생략(Antecedent-contained deletion: ACD 또는 Antecedent- contained ellipsis: ACE)은 Bouton(1970), Sag(1976), Lappin(1996) 등에 의하여 이름 붙여 졌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사-포함 생략이라고 칭하겠다.

2) 이 논문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술제(1997년 4월 25일)에서 일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참석한 분들의 질문과 논평에 감사드린다.

셋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에는 *every book* 등과 같은 양화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양화사가 포함되면 의미적 중의성을 야기시키므로 더 복잡한 의미적 분석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통사적인 측면에서의 분석만을 시도하려고 한다. 양화사에 대한 의미적 분석은 다루지 않았다.

2. 선행 연구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의 선행 연구는 이론별로, 또는 분석하는 장치별로 살펴볼 수 있다.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을 가장 많이 분석한 이론은 변형 문법과 그 문법의 아류인 최소주의 문법이다. 변형 문법과 최소주의 문법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양화사 상승 규칙과 양화사 상승 규칙을 쓰지 않는 논항-이동이다. 다른 문법으로는 범주 문법이 있다. 범주 문법에서는(Jacobson : 1992) LF(논리 형태, Logical Form) 단계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였다. 선행 연구 중 최소주의 이론에서 양화사 상승 규칙을 써서 분석하는 방법과 논항-이동을 이용해서 하는 두가지 분석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또한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반으로 Sag의 관계절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1. 양화사 상승 규칙

양화사 상승 규칙으로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을 분석하기 전에, 양화사 상승 규칙이 분석에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을 변형 문법의 틀에서 바라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선행사-포함 패러독스에 빠지게 된다. 다음과 같은 것을 선행사-포함 패러독스라고 한다.

- (4) a. Kollberg recognized every suspect Beck did.
 b. Kollberg [_{VP} recognized every suspect Beck did [_{VP} recognized every suspect Beck did [_{VP} ...]]]]

(4a)의 문장에서 *did*라는 동사가 나타내는 것은 *recognized*이다. 그러나 (4b)의 분석에서와 같이 동사구 (VP)가 생략되어 있고, 그 동사구가 복사되어져 나타나는 것으로 최소이론에서는 분석되므로, 무한하게 VP가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며 이를 선행사 포함 패러독스라 한다.

양화사 상승 규칙을 이용한 May (1985)의 분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4a)의 문장을 양화사 상승 규칙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그 LF는 다음과 같다.³⁾

3) 지배결속 이론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의 기본적인 틀은 D-구조, S-구조, 논리 형태 (LF), 음성 형태 (PF) 등으로 나타난다. LF라 함은 이 틀 속에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양화사 등이 이 단계에서 처리되고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5) [_{IP} [_{DP} every suspect Beck did [_{VP} e_i]] [_{IP} Kollberg [_{VP} recognized e_i]]]

*every suspect*가 양화사 상승 규칙에 의해 이동되므로, 생략된 동사구는 선행사 동사구에 포함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선행사 포함 패러독스가 해결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양화사 상승 규칙을 반대하는 선행사 포함 생략 구문 분석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2.2. 논항-이동

Hornstein (1994)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 양화사 상승 규칙이 적용되면 안된다는 점을 들어서 양화사 상승 규칙의 적용을 반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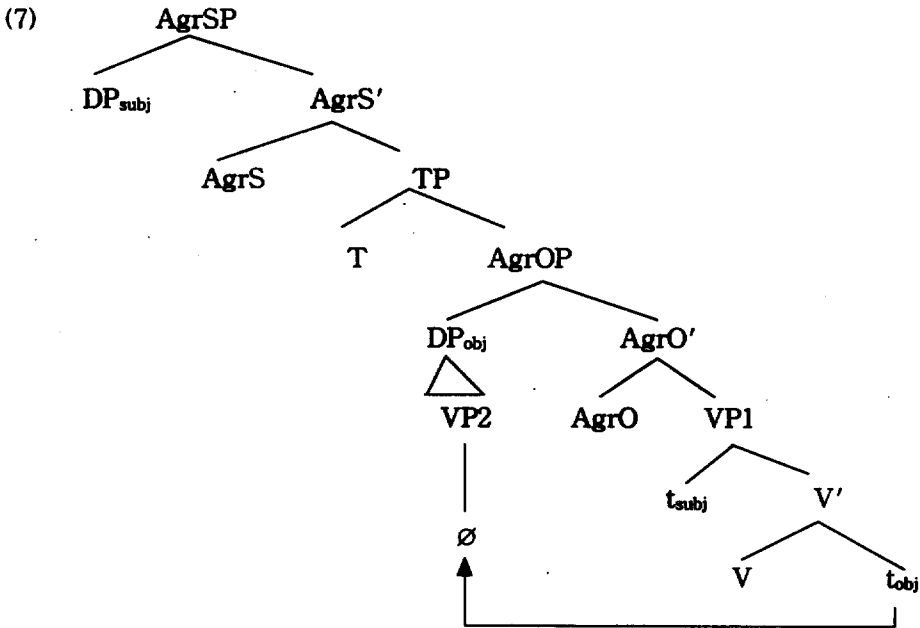
(6) *Who said that he_i read how many articles about John_i?

이것은 결속이론⁴⁾과 연결되는데 (6)의 문장을 보면 결속이론 C가 적용됨을 알 수 있는데 *John*이라는 고유 대명사는 어떤 환경에서도 결속이 되면 안되는데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he*와 결속되어 있으므로 결속이론 C에 위배되어 비문이 된다고 설명하면 된다. 그러나 (6)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many articles about John*이라는 양화사가 포함되어 있는 명사구가 있으므로 이것을 양화사 상승 규칙에 의하여 이동하게 되면, *John*이 앞으로 이동되어 정문화되어 버리게 된다. 이러한 것을 이유로 Hornstein은 양화사 상승 규칙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A-이동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아주 특이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존재하고 많은 학자들이 활용해 왔던 양화사 상승 규칙을 없애는 효과를 파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A-이동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A-이동은 A'-이동과 달리 전체 논항을 이동하는 것이다. (4a)의 문장에서 A'이동은 한정사만 이동할 수 있으나 A-이동은 *every suspect* 전체를 이동하기 때문에 생략된 동사구가 선행사에 계속해서 포함되는 패러독스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나무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결속이론에는 세 가지 원리로 나뉘어 지는데 보통 A, B, C로 나누어진다. 결속이론 A는 제귀대명사에 관련된 원리이고, B는 대명사, C는 고유명사에 관련된 원리이다.

5) A-이동은 A'-이동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기에서 A는 논항 (Argument)을 나타낸다. 논항에 해당하는 것은 보어 동이 있으며, A'에 해당하는 것은 wh 구문이나 한정사나 명세사가 여기에 해당하게 된다.



위 나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항인 목적어가 VP2 위치로 이동하게 되므로 위 나무 그림에서 VP2가 생략된 것이고 VP1이 선행사이다. 보는 바와 같이 VP2는 그것의 선행사인 VP1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한하게 반복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논항-이동에 관한 분석은 많은 반론을 일으켰다. 만약 논항-이동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LF 단계 자체에 대한 부정을 낳게 되는 것이며, 지금까지 양화사 상승 규칙으로 분석하거나 설명해왔던 것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⁶⁾

2.3. Sag (1996)

Sag의 논문은 영어 관계절 구문에 관한 것이다.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과 관련된 관계대명사가 없는 관계절 구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관계대명사가 없는 관계절 구문을 살피기 전에 관계절 구문이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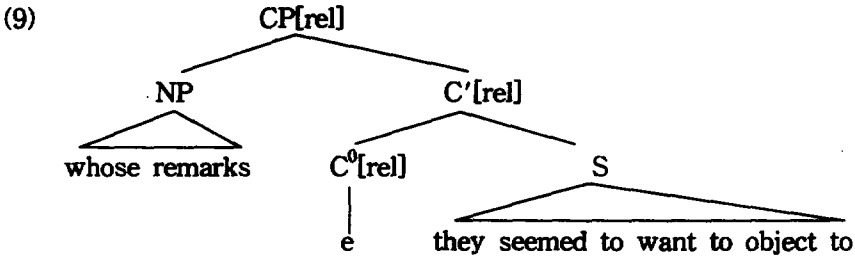
Sag에서 살피고 있는 영어 관계절 구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8) a. who visited Kim? (subject Wh-relatives)
- b. who Kim visited (nonsubject Wh-relatives, finite)
- c. in which to live (nonsubject Wh-relatives, infinitival)
- d. we visited (non-Wh relative clauses: bare relatives)

6) 논항-이동에 대한 반박은 Kennedy(1995)와 Fox(1997)을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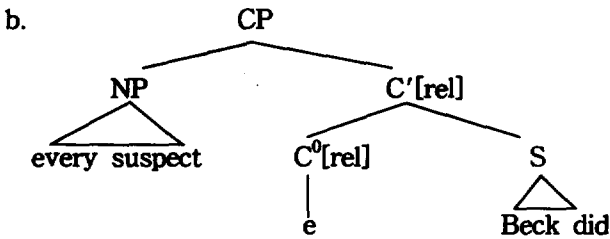
- e. that we visited (non-Wh relative clauses: that-relatives)
- f. for us to visit (non-wh relative clauses: simple infinitival relatives)

위의 문장에서 우리가 다룬 관계절 구문은 (18d)와 같은 경우이다. 보통의 관계대명사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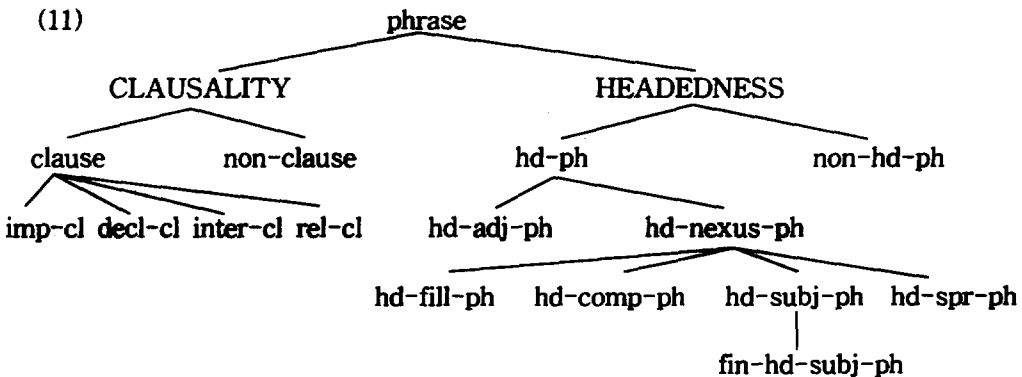


위의 기본 구조는 우리가 살펴본 관계대명사가 없는 관계절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에 위의 구조를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10) a. Kollberg recognized every suspect Beck d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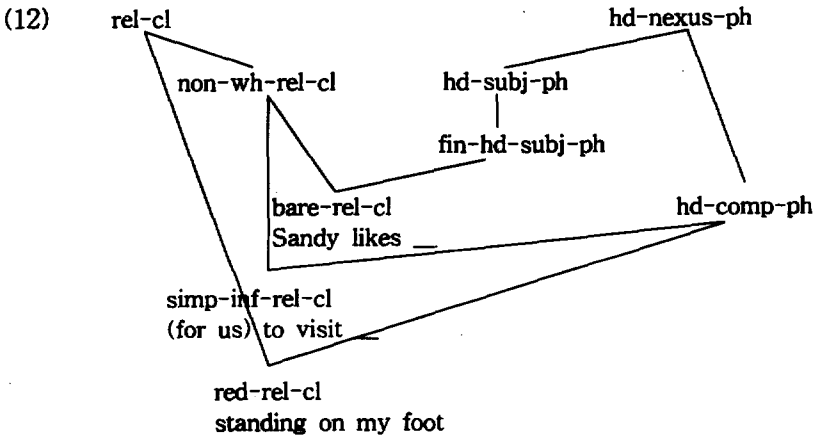


그러면 관계절 구문의 위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핵어 중심 구조 문법의 기본 위계는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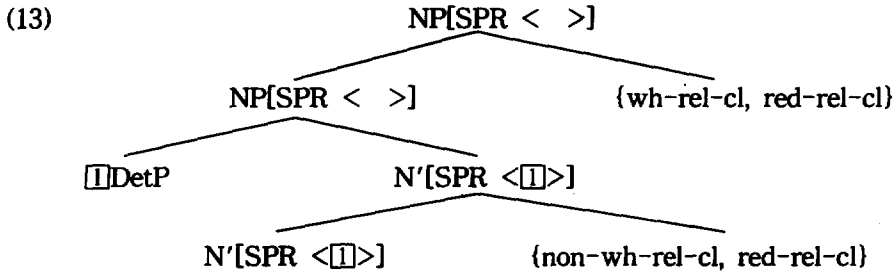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는 절성 (clausality)과 핵어성 (headedness)으로 나누어지며, 절성은 절 (clause)과 절이 아닌 것 (non-clause)으로 나누어지는 반면, 핵어성은 핵어구 (headed-phrase)와 비핵어구(non-headed-phrase)로 나누어지게 된다. 절성의 절에서 그 절은 다시 명령절 (imperative-clause), 선언절 (declarative-clause), 의문절 (interrogative-clause), 관계절 (relative-clause)로 나뉘게 되며, 핵어성에서 핵어구는 핵어-부가어-구 (head-adjunct-phrase)와 핵어-핵-구 (head-nexus-phrase)로 나뉘어지게 된다. 핵어-핵-구는 다시 핵어-충어-구 (head-filler-phrase), 핵어-보어-구 (head-complement-phrase), 핵어-주어-구 (head-subject-phrase), 핵어-명세어-구 (head-specifier-phrase)로 나뉘며, 핵어-주어-구는 한정-핵어-주어-구 (finite-head-subject-phrase)로 확장되게 된다. 위계의 속성 중 하나는 제일 하위 분류화된 하나의 종류는 그 상위 유형의 속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절의 속성이 되는 것은 그것이 절이 아니며, 인과성을 가지고 있고, 구라는 것이다.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에서 위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설명의 간결성과 더불어 이론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위에 살펴보았던 관계절의 종류와 관계적 위계에 따라 관계절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절은 핵어-핵-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선이 서로 교차하는 것은 하나의 종류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가 없는 관계절 (bare-rel-cl)은 관계절 중에서도 wh가 없는 관계절이며 이것은 또한 한정-핵어-주어-구의 구조를 가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은 하나의 종류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에서 선행사가 되는 것은 주절의 동사가 된다. 주절의 동사는 그 동사의 속성대로 하위 범주화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관계대명사가 없는 관계절을 지닌 명사를 하위 범주화하게 되는 것이다. Sag (1996)에서는 관계절이 나타날 수 있는 위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3)에서 *wh*관계절과 축약된 관계절이 나타나는 위치는 명사구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고, 관계대명사가 없는 관계절과 축약된 관계절이 나타날 수 있는 위치는 명사 다음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즉, 관계대명사가 있는 관계절인 경우에는 명사구 다음에 나타나고, 선행사-포함 생략이 들어간 관계절은 명사 다음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축약된 관계절은 명사구와 명사 뒤 모두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Sag (1996)에 나타난 관계절 분석은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을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 틀 내에서 분석하는데 많은 기초적인 개념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것은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이 관계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Sag (1996)의 관계절 분석의 기본 방향은 위계를 이용하여 그 위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속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가 이동이나 변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Sag의 연구 결과는 이 논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3. 분석

본 연구에서 살펴볼 언어 현상은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이다. 대상 언어는 영어다. 연구 범위는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통사 현상과 의미 현상을 고찰하는 것과 생략된 동사구가 속하고 있는 명사구나 전치사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 통사 현상은 관계절과 생략이다. 이 두 가지는 여러 이론에서 많은 문제가 되어 왔으며, 수많은 선행 연구가 있다. 이 구문에 나타나는 의미 현상은 양화사의 영역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양화사가 포함된 구문은 그 양화사가 협의의 영역을 가지고 있느냐 광의의 영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3.1. 분석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자료는 선행 연구에서 뽑은 자료들임을 밝혀 둔다.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 자료는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이 보어로 쓰이느냐 아니면 부가어로 쓰이느냐에 따라 나뉘어 지며, 또 다른 하나의 갈래로 나뉠 수 있는 것은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이 포함된 명사구이다. 3.1.1에서는 보어로 쓰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에

대한 자료를, 3.1.2.에서는 부가어로 쓰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에 대한 자료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3.1.3에서는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을 포함한 명사구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3.1.1. 보어로 쓰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

먼저 동사의 보어로 쓰인 선행사-포함 생략 현상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14)는 *every suspect Beck did*가 *question*의 보어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14)와 (15)의 문장의 차이는 하나는 *that*관계대명사가 없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있는 경우이다. 보통 관계대명사가 있는 경우 선행사-포함 생략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15)와 같은 문장은 그러한 일반화가 절대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14) Larsson thought that Kollberg questioned every suspect Beck did.
- (15) Who thought that Fred read how many books that Bill did?

다음의 문장은 의미 해석에 있어서 중의성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즉 (16) 문장에서 *one*과 *every* 중 어떤 것이 광의의 영역을 갖는가에 따라서 의미해석이 달라지지만 (17) 문장은 그런 중의성이 없어진다. 양화사가 하나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 (16) At least one tourist wants to visit every city.
- (17) Tim wants to visit every city Bill does.

다음은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에서 생략된 구가 항상 주절의 해석 (*matrix reading*)만이 되는 예문들이다.

- (18) Betsy's father wants her to read every book her boss does.
 - i. Betsy's father wants her to read every book her boss wants her to read. (O)
 - ii. Betsy's father wants her to read every book Betsy's father wants her boss to read. (X)

즉, 위의 예의 해석은 *Betsy*의 상사가 읽기를 원하는 모든 책을 *Betsy*의 아버지도 또한 읽기를 원한다는 것이지, *Betsy*의 아버지가 *Betsy*의 상사와 *Betsy* 두 사람에게 책을 읽으라는 의미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의 문장들도 같은 류의 자료이다.

- (19) Erik wants Polly to invest in the very same stock her broker does.
(wants her to invest in)
- (20) Now that we're both in therapy, Marie wants to start to make the same

changes in lifestyle that I do.

- (21) When she started the program, Polly had to begin to learn every language Erik did. (had to begin to learn)

다음의 예들은 위와 같은 주절의 동사로 읽히는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 Rizzi (1978) 등에서는 내포절이 있으면 주절의 동사로 읽히는 해석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문장들은 주절의 동사로 읽히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Rizzi의 주장에 반례가 되는 예문들이다.

- (22) Which of your friends expects to visit which cities that you do?
 (23) Which of your colleagues hopes to attend which conferences that you do?
 (24) Which TA hates to read which homeworks that you do?

3.1.2. 부가어로 쓰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

다음은 부가어로 쓰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의 예이다.

- (25) Kollberg wanted to word every question as Beck did.

(25) 예문에서 *as Beck did*가 부가어로 쓰였다. 이 경우 *Beck wanted to word every question*의 해석이 아니라, *Beck worded every question*으로 해석이 된다. 지배 결속 이론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 (26) [IP Kollberg [VP wanted [IP PRO to [VP word every question] [PP as Beck did]]]]

다음에 나오는 예문의 경우 주절 동사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은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에 양화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27) Jones says he wants to word the proposal in the same way I do, but I'm not sure that I can trust him to do so.
 (28) Tim likes to perform in the same clubs that Bill does.

즉 *in the same clubs that Bill does*를 양화사를 포함한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으로 보아 양화사 상승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다.

- (29) [IP [DP the same clubs that Bill does]_i [IP Tim [VP likes [IP to [VP [VP perform] [PP in e_i]]]]]]

(35) Tim has [vp[vp performed]][pp in every club Op_i Bill has [vp[vp performed]][pp in e_i]]]

이 단원에서 살펴본 자료는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이 부가어로 쓰인 경우이다.

3.1.3.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을 포함한 명사구

이 구문은 앞의 보어로 쓰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과 부가어로 쓰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과 구별된다. 그 차이점을 구별하기 위해서 보어로 쓰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과 부가어로 쓰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을 다음의 예문에 같이 제시한다.

- (36) a. Kollberg recognized every suspect Beck did.
 <보어로 쓰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
 b. Kollberg wanted to word every question as Beck did.
 <부가어로 쓰인 선행사 생략 구문>
 c. Beck read a report on every suspect Kollberg did.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을 포함한 명사구 구문>

다음은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을 포함한 명사구가 있는 구문이다.

- (37) Beck read a report on every suspect Kollberg did.
 (38) Melander requested copies of most of the tapes Larsson did.
 (39) Kollberg took pictures of the same people Beck did.

지금까지 우리는 보어로 쓰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 부가어로 쓰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이 포함된 명사구에 대한 예문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하겠다.

3.2. 분석 도구

연구방법은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최소이론의 설명이 아니라 제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에서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에 대해 연구되어 온 것으로는 Sag가 관계절 구문에 관한 논문이다. Sag는 관계절의 여러 가지 유형을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그 중 선행사-포함 구문에 관련되는 것은 *wh*가 없는 관계절이다. 관계절에 대한 분석 방법은 Sag를 따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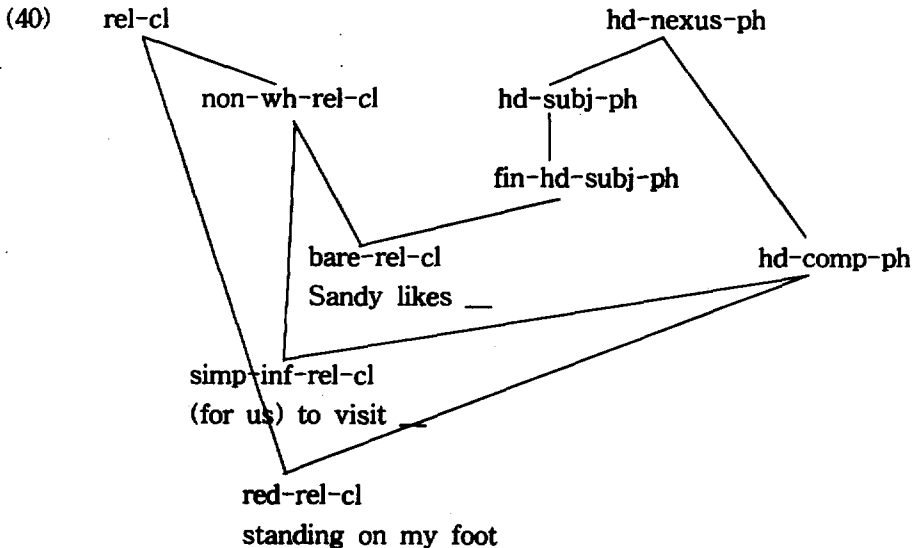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은 제약에 기반을 둔 문법이다. 생성 문법의 하나인데 제약에 기반을 두었다 함은 많은 언어적 생성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것을 제약한다는 의미에

서 있다. 이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속성 위계 (sort hierarchy)이다. 이 속성 위계로 어떤 구문이 어디의 위치에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선행사-포함 생략을 다룸에 있어서도 이 위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에서 많이 쓰여 왔던 도구는 복사와 생략이었다. 이것은 변형 문법 이론에서 변형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은 이러한 변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변형이 있다는 것은 심층구조와 표면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에서는 표면구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 따라서 변형이 아니라 구조공유 (structure sharing)라는 도구가 사용된다. 이 구조공유는 변형문법에서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복사, 생략 등의 변형들을 대신한다. 즉, 구조공유는 복사의 기능과 구조공유로 인한 생략까지를 포함하는 도구인 것이다.

3.2.1. 속성 위계 (Sort Hierarchy)⁷⁾

속성 위계는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속성 위계로부터 모든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단락에서는 Sag에서 다루어진 속성 위계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다. 다음 위계는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의 위상을 나타낸 것이다.



7) 선행사 포함 생략 구문에 관한 속성위계는 Sag (1997)에 따른다. (40)에 나타난 속성위계는 (12)에서 반복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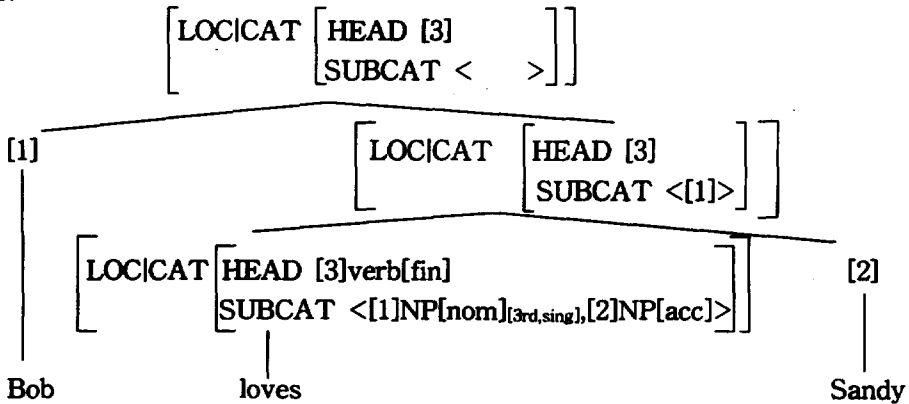
(4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은 관계사가 없는 관계절에 속하며, 주어가 있는 한정절이며, *wh*가 없는 관계절임을 알 수 있다. 이 위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Sag (1997)을 참조하기 바란다.

3.2.2. 구조공유 (Structure Sharing)

구조공유는 Chomsky이론의 변형과 같이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한 구조와 다른 구조가 서로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문장을 통해서 구조공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41) a. Bob loves Sandy.

b.



구조공유는 같은 꼬리표 (tag)를 가짐으로써 표시되어 진다. 예를 들어 *Bob loves Sandy*라는 문장에서 핵어는 *loves*인데 이 정보는 문장, 동사구, 동사에까지 모두 공유되어 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구조공유는 꼬리표 [3]으로 나타나 있다.

동사 *loves*의 하위 범주화하다 나타난 주어와 목적어의 값 또한 구조공유를 사용해서 위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공유는 이렇게 간단한 문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휘규칙 (lexical rules)⁸⁾에도 나타난다.

3.3. 분석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에서 선행사-포함 생략 현상이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 이 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다음 3가지 종류의 자료를 먼저 제시하고 그 예문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겠다.⁹⁾

8) 지금까지 나타난 어휘규칙은 수동태 (passive)를 만드는 어휘규칙과 추출 (extraction) 어휘규칙 등이 있다.
 9) (68)의 예문은 (46)의 예문을 반복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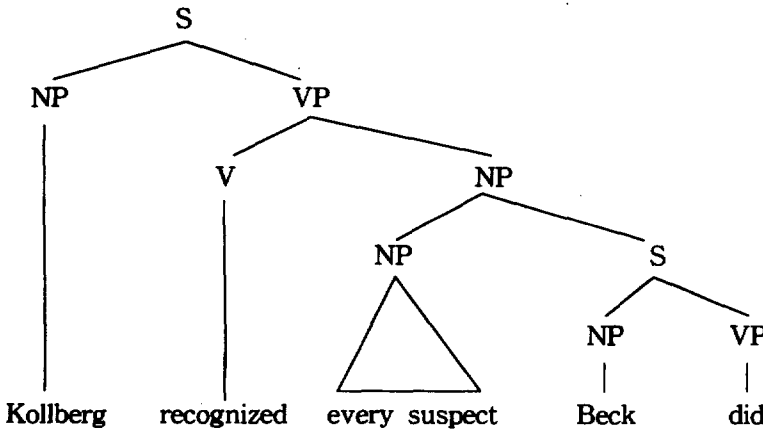
- (42) a. Kollberg recognized every suspect Beck did.
 <보어로 쓰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
- b. Tim likes to perform in the same clubs that Bill does.
 <부가어로 쓰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
- c. Beck read a report on every suspect Kollberg did.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을 포함한 명사구>

그러면 각각의 문장의 나무 그림을 먼저 보이고 그 분석 방법을 살펴보겠다. 먼저 보어로 쓰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문장에 대한 간단한 나무 그림을 제시하고, 부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피는 방향으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3.3.1. 보어로 쓰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

(42a)의 문장을 나무 그림으로 단순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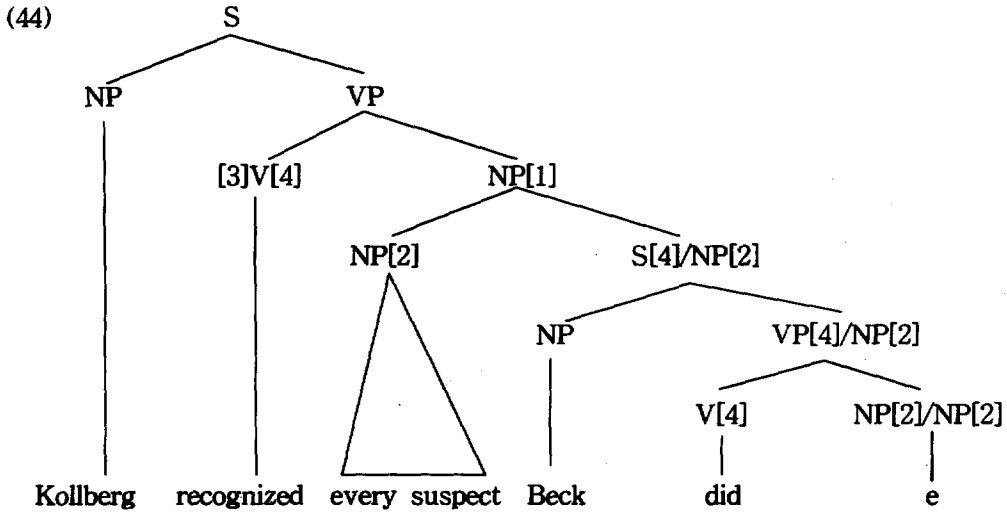
(43) Kollberg recognized every suspect Beck did.



최소이론의 분석은 Fox (1997)와 Kennedy (1996)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그들의 분석은 *every suspect*를 양화사 상승 규칙으로 이동하고 *recognized*만을 복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들의 분석의 핵심은 양화사 상승 규칙이었다. 그러면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에서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그 가능한 분석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위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해결되면 된다. 첫째는 주절의 VP와 내포절의 VP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둘째, 주절의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목적어와 내포절의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목적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셋째, 표면 구조만을 인정하는 이론에서 *did*는 *did*로 나타나야 하며 그것의 내용이 주절 동사와

구조 공유하게 되는데 이때 구조 공유에 있어서 공유하게 되는 요소는 그 동사의 기본적인 속성뿐이지 더 이상의 정보는 아니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 나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주절의 VP와 내포절의 VP가 다르다는 것이 보여졌는지 살펴보자. 주절의 VP와 내포절의 VP는 위의 그림에서 다르게 명세화되어 있다. 그 동사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같지만 그 동사구 자체는 다르다는 것이다. 둘 다 [4]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절의 동사구만이 [3]을 가지게 된다. 즉 좀 더 세분화된 정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절의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목적어와 내포절의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목적어가 다른 것을 보여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주절의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목적어는 *every suspect Beck did*이고 내포절의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목적어는 *every suspect*이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다음은 주절의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값과 내포절의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값을 나타낸 것이다.

- (45) 주절의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요소: <NP, NP[1]>
 내포절의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요소: <NP, NP[2]>

다음으로 표면구조만을 인정하는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 이론에서 어떻게 *did*라는 것이 *recognize t*의 정보를 가질 수 있는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구조공유라는 도구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위의 그림을 보면 *did*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자세히 나타나 있다. *did*라는 동사가 가질 수 있는 정보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어 값이 생략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6) Kollberg recognized every suspect Beck recognized.

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위와 같은 구조를 인정하는 관계절에 대한 속성 위계의 세분화이다. 둘째로는, Pollard & Sag (1994)에서 사용한 무한 의존 구문을 위한 스키마¹⁰⁾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Pollard & Sag (1994)에서 사용된 스키마에서는 모범주가 문장이었다. 그 모범주를 확장시키는 작업이 요구된다. 셋째, 주절의 동사와 내포절의 동사가 구조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 공유하는 정보가 전체적이지 않고 부분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적인 공유를 위해서는 더욱 상세한 이른 내에서의 명세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구조공유의 메커니즘이 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가 필요하다.

3.3.2. 부가어로 쓰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

다음은 부가어로 쓰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부가어에 관한 분석은 Pollard & Sag (1994)에 약술한바 있다.¹¹⁾ 동사가 부가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와 부가어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 (47) Tim likes to perform in the same clubs that Bill does.
- a. Tim likes to perform in the same clubs that Bill likes to perform.
 - b. Tim likes to perform in the same clubs that Bill performs.

위 문장은 *in the same clubs that Bill does*가 전체문장을 수식하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47)의 자연스러운 읽기는 (47a)가 아니라 (47b)이다. 따라서 (47)의 나무 그림은 (48)와 같이 나타난다.

10) Pollard & Sag (1994: 185)에서 무한의존구문을 위한 스키마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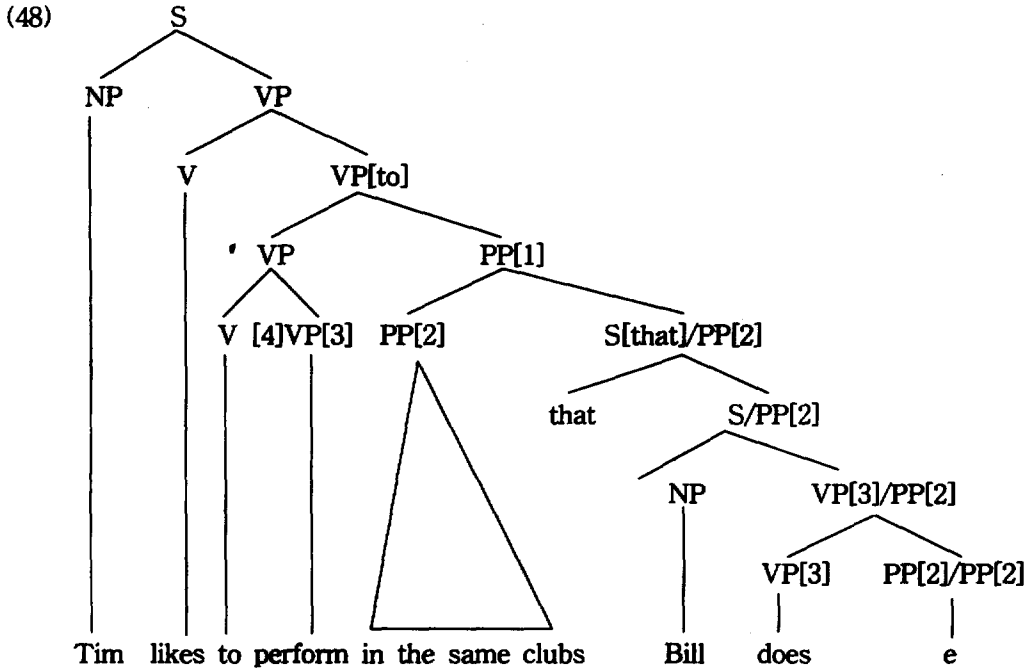
Filler-Head Rule (Schema 6)

X -> [LOCAL [1]], S[fin,INHER(SLASH {[1],...}), TO-BIND(SLASH {[1])}]

FILLER HEAD

무한 의존 구문을 설명하기 위해 층어와 핵어 구문을 설정한 것이다.

11) Pollard & Sag (1994: 53)에 따르면 핵어-부가어 구조는 다음과 같은 스키마를 가지게 된다. (Schema 5) a phrase with DTRS value of sort head-adjunct-structure (head-adj-struct), such that the MOD value of the adjunct daughter is token-identical to the SYNSEM value of the head daughter.



부가어로 쓰인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에 대한 분석도 세 가지에 초점을 두어 다루어 보겠다. 첫째, 주절의 동사구와 내포절의 동사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 문장을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된다.¹²⁾

(49) Tim likes to perform in the same clubs that Bill performs.

따라서 우리가 살필 동사구는 *perform in the same clubs Bill does*와 *performs to*이다. 위 나무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그 구조는 PP[4]와 PP[3]으로 다르게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살필 것은 주절에 부가어로 쓰인 전치사구와 내포절에 쓰인 동사구의 전치사구의 값이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절의 전치사구는 *in the same clubs Bill does*가 되며, 내포절의 생략된 전치사구는 *in the same clubs*로 주절의 전치사구는 PP[1]로 내포절의 전치사구는 PP[2]로 표기되어 이름을 나타낸다. 셋째로 살필 것은 주절의 동사와 내포절의 동사가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주절의 동사는 [4]VP[3]으로 내포절의 동사는 VP[3]으로 나타내어 그 두 동사가 서로 다르나 부분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분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요구되어 지는데 네모 속에 들어 있는 국부 나무 그림을 생성할 수 있는 스키마와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을 포함한 명사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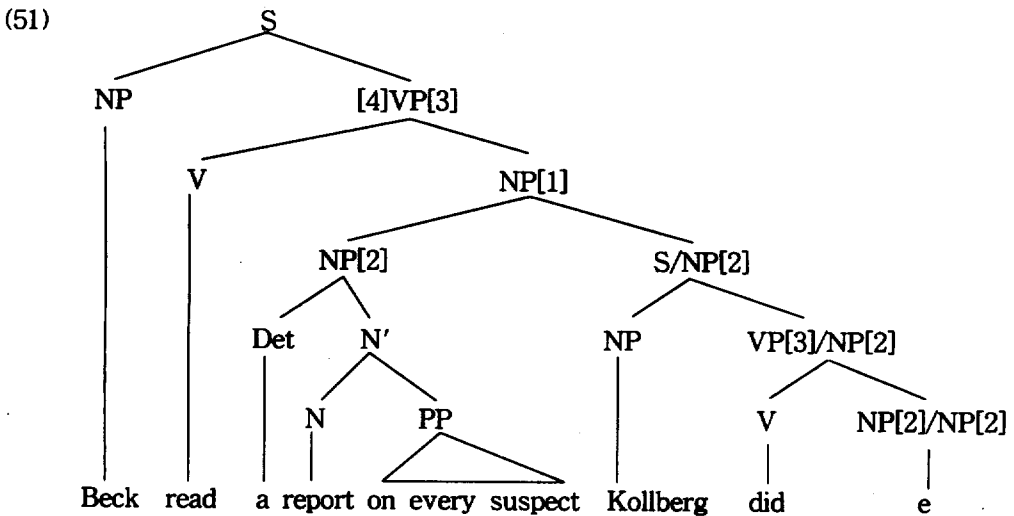
12) 이것은 (75b)에 나타난 것을 다시 반복한 것이다.

3.3.3.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을 포함한 명사구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을 포함한 명사구 구문으로 알아볼 예문은 (77)과 같다.

(50) Beck read a report on every suspect Kollberg did.

위의 경우 *a report*가 *read*의 보어로 쓰였고 이 보어가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사-포함 구문 자체가 보어로 쓰인 경우와는 구별하여 다루어 보았다. (50)에 대한 나무 그림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주절의 명사구와 내포절의 명사구가 다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위 나무 그림에서는 꼬리표를 [3]과 [4]로 하여 내포절의 동사구와 주절의 동사구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동사 속성은 같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므로 VP[3]은 두 동사구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이며, 주절의 동사구일 경우 더 명세화된 [4]VP가 된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절의 동사구가 취하는 목적어와 내포절이 취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다르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위의 경우 NP[1]은 주절의 동사구가 취하는 목적어이며, 내포절에 있는 동사가 취하는 목적어는 NP[2]로 다름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주절의 *read*가 취하는 목적어는 *a report on every suspect Kollberg did*이지만 내포절의 동사가 취하는 목적어는 *a report on every suspect*이다.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표면구조만을 주장하는 핵어 중심 구구조 문법에서 어떻게 *did*라는 동사가 *read t*를 대신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위 나무 그림에서 표시되어 있듯이 그것은 구조공유라는 매커니즘을 이용해서 설명되고 있다. 구조 공유에 음성적인 정보는 공유되지 않지만 의미적인 정보와 통사적인 정보가 부분적으로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 분석 결과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은 세가지 흥미로운 언어 구문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그 세가지 흥미로운 언어 구문은, 양화사, 관계절, 생략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세가지에 중점을 두어 분석을 해보았다.

최소이론과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본 논문에서 어떤 접근을 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첫째, 최소이론은 표면구조 이외의 다른 구조 즉 LF 등과 같은 추상적인 구조를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는 반면 핵어중심 구구조 문법에서는 표면구조 하나로만 분석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번째 차이점을 도출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두 번째 차이점은 최소이론은 변형의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양화사 상승이든 지 논항 이동이든 간에 변형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어 그 생성구조가 복잡하다. 그러나 핵어중심 구구조 문법에서는 변형의 개념없이 속성 위계와 구조 공유라는 보편적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고 있다. 이 두가지 도구로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의 의미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핵어중심 구구조 문법에 있어서 이 구문이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구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관계절에 대한 속성 위계가 우선 바로 잡혀져야 한다. 관계절 구문의 지금까지의 분석으로는 이 구문을 제대로 설명해 낼 수가 없으므로 그에 합당하는 속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명사구에 대한 의미 해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하나의 완전한 사건(event)을 포함하는 명사구인지 아니면 하나의 개체(entity)를 나타내는 것인지 명사구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양화사 분석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do* 동사에 대한 연구이다. 이 *do* 동사를 생략으로 처리해서 분석할 것인지 아니면, *do* 동사에 대한 어휘적인 속성으로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do* 동사에 대한 어휘적 속성과 생략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만약 선행사-포함 생략 구문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이 주어진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세가지 언어 현상 생략, 관계절, 양화사 구문의 분석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Bouton, Lawrence. 1970. Antecedent contained pro-forms, In M. Campbell et al.(eds.) *Papers from the six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s Society*.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IL.
- Chung, Sandra, William Ladusaw, and James McCloskey. 1995. Sluicing and logical Form. *Natural Language Semantics* 3: 239-282.
- Fiengo, Robert and Robert May. 1994. *Indices and Identity*. Cambridge, MA: MIT Press.
- Fox, Danny. 1995. Economy, Scope and Semantic Interpretation Evidence from VP Ellipsis. MIT.

- Fox, Danny. 1997. Condition C Effects in ACD. to appear in MITWPL 27.
- Fox, Danny and Uli Sauerland. 1997. Illusive Scope of Universal Quantifiers. MIT.
- Jacobson, Pauline. 1992. ACD in a Variable Free Semantics. In *Proceedings of SALT II*. 193-213.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
- Kennedy, Christopher. 1995. Antecedent Contained Deletion and the Syntax of Quantification. unpublished m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 Park, Byung-Soo and Jong-Bok Kim. 1996. English Free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From A Constraint-Based Perspective.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PACLIC 11)*. 31-41.
- Pollard, Carl and Ivan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g, Ivan. 1976. *Deletion and Logical Form*.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 Sag, Ivan and Janet Dean Fodor. 1995. Extraction Without Traces.
- Sag, Ivan. 1997. English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 Lappin, Shalom. 1996.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Blackwell. Oxford.